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 8월 2주 차, 주간 동향] 李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51.1%(5.4%P↓)...2주 만에 12%P 하락 民 39.9%(8.5%P↓), 국힘 36.7%(6.4%P↑)...오차범위 내 접전	엠바고 8월18일(월) 08:00
---	--

(주)리얼미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8층 전화 : 02-548-4071(대) 8224(Fax)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조사기간 : 2025년 8월 11일(월) ~ 8월 14일(목) -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 - 조사방법 : 무선(100%) 자동응답 - 표본오차 : ±2.2%p (95% 신뢰수준)	(정당 지지도) - 조사기간 : 2025년 8월 13일(수) ~ 8월 14일(목) -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 - 조사방법 : 무선(100%) 자동응답 - 표본오차 : ±3.1%p (95% 신뢰수준)
--	---

▲제21대 대선에서 각 방송사와 여론조사기관들이 내놓은 예측 조사 가운데, 리얼미터의 예측 조사가 실제 득표율과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예측한 1~2위간 격차는 8.6%p로 실제 득표율에 따른 격차와 0.3%p 차이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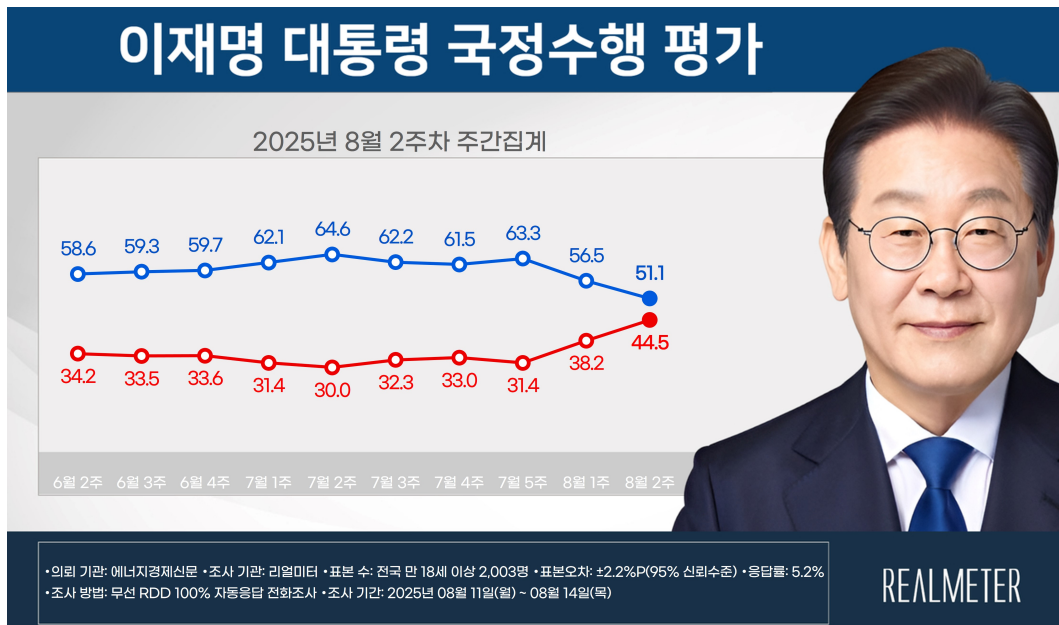
조사기관	연론사	조사방법	조사규모	오차범위	1-2위간 격차 예측 차이	예측치	예측격차	실제득표율
리얼미터	더데일리	ARS	2,004명	±2.2%p	0.3%p	이 50.1	0.68	49.42
						김 41.5	0.35	41.15
넥스트리서치	MBN	전화면접	1,000명	±3.1%p	0.8%p	이 49.2	0.22	49.42
						김 41.7	0.55	41.15
메타보이스	JTBC	전화면접	12,000명	±0.9%p	2.9%p	이 50.6	1.18	49.42
						김 39.4	1.75	41.15
리서치앤리서치	채널A	전화면접	11,221명	±0.93%p	3.9%p	이 51.1	1.68	49.42
						김 38.9	2.25	41.15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업소스	방송3사	전화면접	80,146명	±0.8%p	4.1%p	이 51.7	2.28	49.42
						김 39.3	1.85	41.15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1.1%(5.4%P↓), 부정 44.5%(6.3%P↑)

- 李 대통령 지지를 50%초반대로 '뚝'...2주 만에 12%P 추락, 일간 14일(목)에는 40%대로 주저앉아
-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 주식 양도세 논란, 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서울 등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의 하락 폭이 두드러져,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됨.
- 긍정 평가, 인천·경기(11.0%P↓), 대전·세종·충청(6.4%P↓), 서울(6.2%P↓), 광주·전라(5.2%P↓), 여성(5.8%P↓), 남성(5.2%P↓), 20대(9.1%P↓), 40대(7.0%P↓), 50대(6.8%P↓), 60대(5.5%P↓), 중도층(6.6%P↓), 진보층(3.6%P↓), 보수층(2.8%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10.9%P↓), 자영업(9.3%P↓), 가정주부(6.5%P↓), 학생(5.1%P↓)에서 하락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8월 11일(월)부터 8월 14일(목)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총 38,319명 통화 시도)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8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1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주 8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5.4%P 하락한 51.1%(매우 잘함 40.4%, 잘하는 편 10.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3%P 상승한 44.5%(매우 잘못함 35.7%, 잘못하는 편 8.8%)로 나타나, 긍정-부정 격차는 6.6%P로 오차범위 밖이지만 좁혀졌다. 잘 모름'은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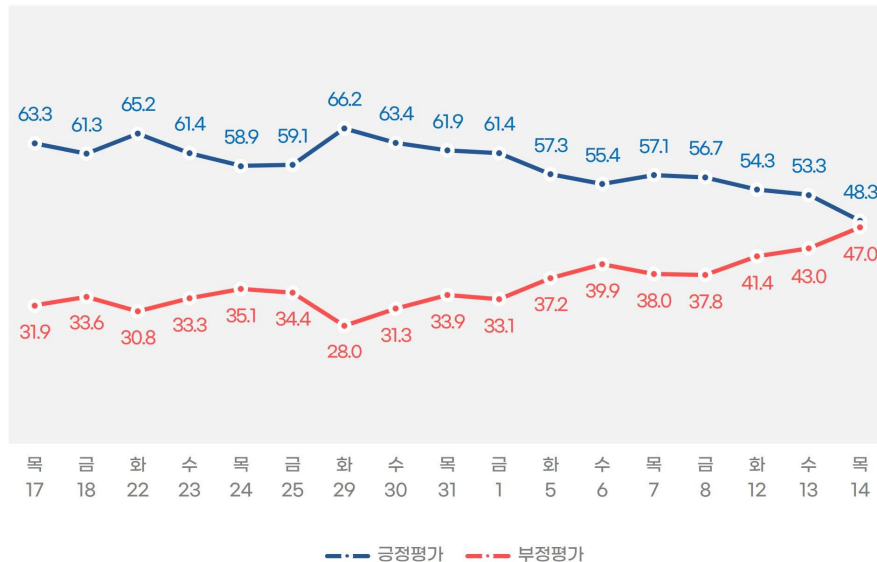


일간 지표로는 지난주 금요일(8일) 56.7%(부정 평가 37.8%)로 마감한 후,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불거진 12일(화) 54.3%(2.4%P↓, 부정 평가 41.4%)로 하락했고,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3일(수)에는 53.3%(1.0%P↓, 부정 평가 43.0%)로 낮아졌다. 이후 김건희 여사 구속 및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여론이 확산된 14일(목)에는 48.3%(5.0%P↓, 부정 평가 47.0%)까지 급락하며 한 주간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다.

■ 2025년 8월 2주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일간 변화

단위: %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응답자 특성

- 권역별로 인천·경기(11.0%P↓, 61.9%→50.9%, 부정평가 45.2%), 대전·세종·충청(6.4%P↓, 56.1%→49.7%, 부정평가 46.5%), 서울(6.2%P↓, 54.6%→48.4%, 부정평가 46.8%), 광주·전라(5.2%P↓, 78.2%→73.0%, 부정평가 22.1%), 대구·경북(3.5%P↑, 38.8%→42.3%, 부정평가 50.1%)
- 성별로 여성(5.8%P↓, 57.4%→51.6%, 부정평가 43.4%), 남성(5.2%P↓, 55.7%→50.5%, 부정평가 45.6%)
- 연령대별로 20대(9.1%P↓, 43.5%→34.4%, 부정평가 59.0%), 40대(7.0%P↓, 70.0%→63.0%, 부정평가 34.9%), 50대(6.8%P↓, 66.0%→59.2%, 부정평가 39.5%), 60대(5.5%P↓, 58.5%→53.0%, 부정평가 42.1%), 30대(1.9%P↓, 51.0%→49.1%, 부정평가 47.2%), 70대 이상(1.6%P↓, 45.3%→43.7%, 부정평가 47.1%)
- 이념성향별로 중도층(6.6%P↓, 58.8%→52.2%, 부정평가 43.7%), 진보층(3.6%P↓, 85.6%→82.0%, 부정평가 16.3%), 보수층(2.8%P↓, 28.4%→25.6%, 부정평가 71.3%)
- 직업별로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10.9%P↓, 59.8%→48.9%, 부정평가 47.7%), 자영업(9.3%P↓, 56.2%→46.9%, 부정평가 49.7%), 가정주부(6.5%P↓, 53.0%→46.5%, 부정평가 45.1%), 학생(5.1%P↓, 44.6%→39.5%, 부정평가 55.8%), 무직/은퇴/기타(4.5%P↓, 57.3%→52.8%, 부정평가 41.4%), 사무/관리/전문직(3.3%P↓, 61.1%→57.8%, 부정평가 39.2%), 농림어업(8.3%P↑, 43.5%→51.8%, 부정평가 42.5%)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9.9%(8.5%P↓), 국민의힘 36.7%(6.4%P↑), 조국혁신당 5.7%(1.7%P↑), 개혁신당 4.4%(1.3%P↑), 진보당 0.9%(0.5%P↓), 기타 정당 3.2%(1.1%P↓), 무당층 9.3%(0.9%P↑)

-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 선이 무너지며 올해 1월 3주차(39.0%) 이후 약 7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았음.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사 논란, 주식 양도세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특히 호남과 인천·경기 등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함.
-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30% 중후반대로 올라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 증가, 특사 비판을 통한 여론 공세,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및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등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며 지지율 상승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임.
-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3.2%P로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짐. 지난 5월 4주차 이후 12주 만에 오차범위 내 격차로 좁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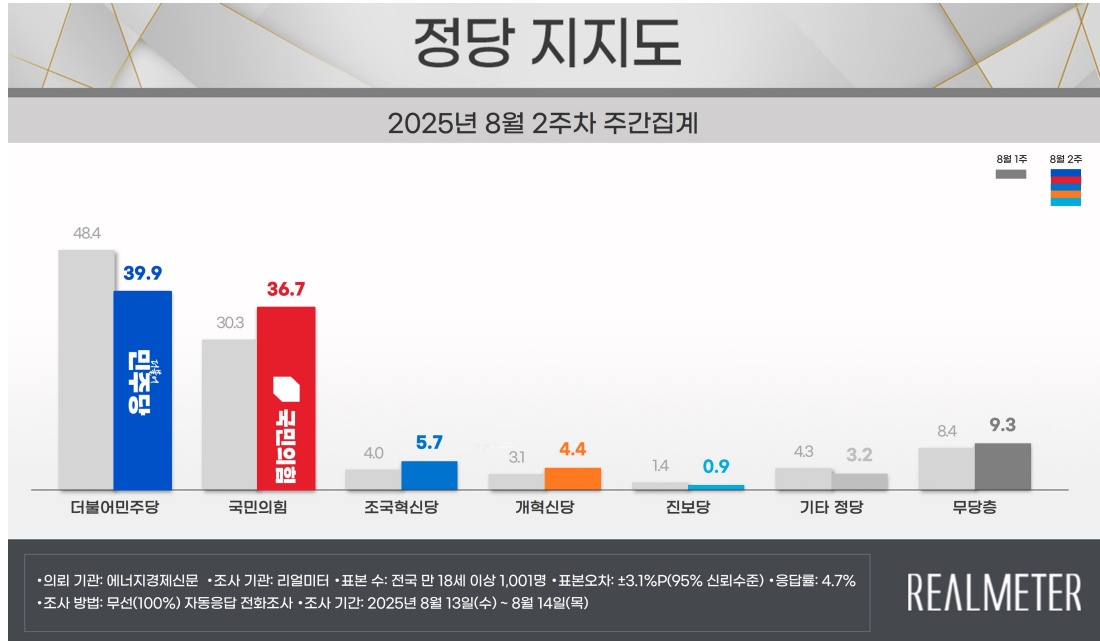
8월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총 21,234명 통화 시도)을 대상으로 집계된 8월 2주차 정당 지지도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 주 대비 8.5%P 급락한 39.9%를 기록하며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6.4%P 상승한 36.7%로 양당의 격차가 3.2%P로 오차범위(±3.1%P) 내로 좁혀졌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은 1.7%P 높아진 5.7%, 개혁신당은 1.3%P 높아진 4.4%, 진보당은 0.5%P 낮아진 0.9%, 기타 정당은 1.1%P 낮아진 3.2%를 기록하였다. 무당층은 0.9%P 증가한 9.3%로 조사됐다.

-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라(16.1%P↓), 인천·경기(15.4%P↓), 서울(8.1%P↓), 부산·울산·경남(4.6%P↓), 여성(13.2%P↓), 40대(15.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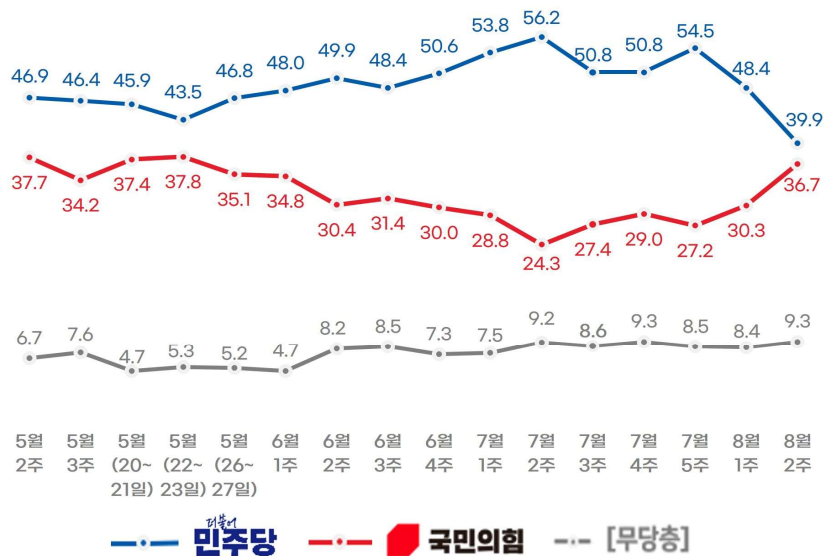
20대(13.8%P↓), 50대(8.7%P↓), 70대 이상(6.5%P↓), 30대(4.5%P↓), 중도층(10.4%P↓), 보수층(6.9%P↓), 진보층(4.0%P↓), 가정주부(16.7%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12.9%P↓), 자영업(12.4%P↓), 사무/관리/전문직(8.8%P↓), 학생(7.1%P↓)에서 하락

- 국민의힘, 광주·전라(10.0%P↑), 대전·세종·충청(9.4%P↑), 인천·경기(7.9%P↑), 부산·울산·경남(7.5%P↑), 서울(6.0%P↑), 여성(7.4%P↑), 남성(5.4%P↑), 20대(15.2%P↑), 70대 이상(8.6%P↑), 40대(7.4%P↑), 50대(5.2%P↑), 보수층(13.6%P↑), 중도층(3.6%P↑), 학생(28.3%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14.9%P↑), 가정주부(14.0%P↑), 농림어업(7.8%P↑), 무직/은퇴/기타(4.2%P↑)에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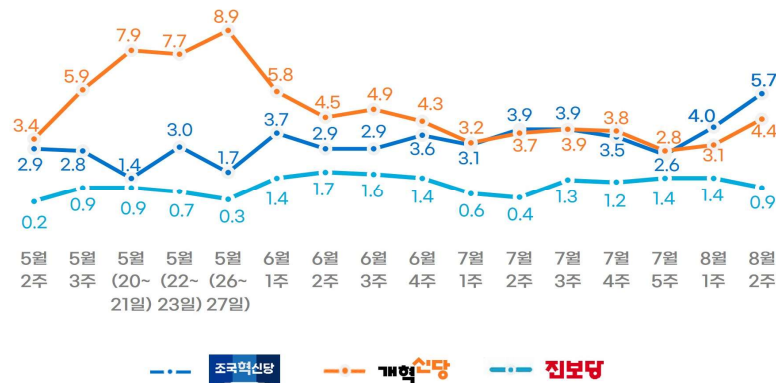
2025년 8월 2주차

정당 지지도 I. 주간 변화 단위: %



■ 2025년 8월 2주차

정당 지지도 II. 주간 변화 단위: %



더불어민주당 응답자 특성별 변화

- 권역별로 광주·전라(16.1%P ↓, 65.2%→49.1%), 인천·경기(15.4%P ↓, 56.3%→40.9%), 서울(8.1%P ↓, 45.7%→37.6%), 부산·울산·경남(4.6%P ↓, 41.2%→36.6%), 대전·세종·충청(3.1%P ↓, 47.1%→44.0%)
- 성별로 여성(13.2%P ↓, 51.8%→38.6%), 남성(3.9%P ↓, 45.1%→41.2%)
- 연령대별로 40대(15.4%P ↓, 65.9%→50.5%), 20대(13.8%P ↓, 37.7%→23.9%), 50대(8.7%P ↓, 56.8%→48.1%), 70대 이상(6.5%P ↓, 37.9%→31.4%), 30대(4.5%P ↓, 42.2%→37.7%), 60대(2.8%P ↓, 46.0%→43.2%)
- 이념성향별로 중도층(10.4%P ↓, 51.3%→40.9%), 보수층(6.9%P ↓, 21.1%→14.2%), 진보층(4.0%P ↓, 76.4%→72.4%)
- 직업별로 가정주부(16.7%P ↓, 48.0%→31.3%),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12.9%P ↓, 51.5%→38.6%), 자영업(12.4%P ↓, 48.0%→35.6%), 사무/관리/전문직(8.8%P ↓, 54.1%→45.3%), 학생(7.1%P ↓, 35.6%→28.5%), 무직/은퇴/기타(1.5%P ↓, 45.8%→44.3%), 농림어업(15.6%P ↑, 29.8%→45.4%)

국민의힘 응답자 특성별 변화

- 권역별로 광주·전라(10.0%P ↑, 12.4%→22.4%), 대전·세종·충청(9.4%P ↑, 27.4%→36.8%), 인천·경기(7.9%P ↑, 28.5%→36.4%), 부산·울산·경남(7.5%P ↑, 31.8%→39.3%), 서울(6.0%P ↑, 31.6%→37.6%), 대구·경북(1.8%P ↑, 48.4%→50.2%)
- 성별로 여성(7.4%P ↑, 29.9%→37.3%), 남성(5.4%P ↑, 30.6%→36.0%)
- 연령대별로 20대(15.2%P ↑, 27.7%→42.9%), 70대 이상(8.6%P ↑, 41.4%→50.0%), 40대(7.4%P ↑, 18.7%→26.1%), 50대(5.2%P ↑, 24.4%→29.6%), 60대(3.5%P ↑, 36.1%→39.6%)
- 이념성향별로 보수층(13.6%P ↑, 58.6%→72.2%), 중도층(3.6%P ↑, 26.3%→29.9%)
- 직업별로 학생(28.3%P ↑, 24.2%→52.5%),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14.9%P ↑, 24.3%→39.2%), 가정주부(14.0%P ↑, 35.7%→49.7%), 농림어업(7.8%P ↑, 31.0%→38.8%), 무직/은퇴/기타(4.2%P ↑, 31.5%→35.7%), 자영업(3.7%P ↑, 33.3%→37.0%), 사무/관리/전문직(2.5%P ↓, 29.3%→26.8%)

무당층 응답자 특성별 변화

- 권역별로 서울(5.0%P ↑, 6.8%→11.8%), 인천·경기(2.4%P ↑, 6.1%→8.5%), 대구·경북(4.5%P ↓, 13.9%→9.4%), 부산·울산·경남(2.3%P ↓, 12.2%→9.9%)
- 성별로 여성(2.0%P ↑, 8.3%→10.3%)
- 연령대별로 30대(5.7%P ↑, 8.0%→13.7%), 20대(2.5%P ↑, 9.5%→12.0%), 50대(1.9%P ↑, 6.5%→8.4%), 70대 이상(2.8%P ↓, 11.9%→9.1%)
- 이념성향별로 중도층(1.5%P ↑, 11.3%→12.8%), 보수층(2.1%P ↓, 6.3%→4.2%)
- 직업별로 사무/관리/전문직(3.8%P ↑, 5.8%→9.6%), 자영업(3.0%P ↑, 9.2%→12.2%), 가정주부(1.2%P ↑, 7.9%→9.1%), 무직/은퇴/기타(1.1%P ↑, 9.6%→10.7%), 농림어업(9.8%P ↓, 15.7%→5.9%),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4%P ↓, 7.8%→5.4%), 학생(4.1%P ↓, 13.7%→9.6%)

◆ 정국 이슈 및 언론 보도 ◆

■ 11일(월) : △ 한-베트남 정상회담...“2030년까지 1500억 달러 교역” △ 李 대통령,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광복절 특별사면 △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출국금지 △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관련 공정위 압수수색 △ 尹, 내란재판 4연속 불출석...피고인 없이 권석재판 진행 △ 국회 '전대 방해' 전한길 징계 개시...죄질 매우 엄중 △ 극우유투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尹 대통령실 지지자 동원' 신고 △ 민주당, 정부에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의견 전달 △ '나토 목걸이 의혹' 서희건설 압수수색 △ 정부, 5천만원 이하 연체빚 '신용사면' 단행 △ 오세훈,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방안 검토 지시 △ 권성동 의원, 통일교 역대 불법자금 수수의혹

■ 12일(화) : △ 李 대통령, 24~26일 방미...트럼프와 25일 정상회담 △ 김건희 구속영장 심사...특검, 증거 인멸·수사 회피 강조 △ 국민의힘 대표 후보 4명, 부산합동연설 △ 국회·개혁신당, 특사 논란에 '국민임명식' 불참 △ 특검 “서희건설, 김건희 ‘나토 목걸이’ 자수...증거인멸 규명” △ 김 여사 구속심사 날 '집사' 체포 △ 경찰·고용부 '잇단 산재'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 李 대통령,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사 공식적으로 밝혀' △ 李 대통령, 산재 막기 위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 △ 장동혁 “민주당 해산시키고 현정질서 파괴하는 이재명 탄핵해야” △ 안철수, 조국·윤미향 사면에 “이재명 씨, 뼈저린 후회 맞을 것” △ 김문수 “당대표 되면 '李 재판촉구 서명운동' 시작...끝장토론 제안” △ 민주, 사법개혁 특위 오늘 출범...‘대법관 증원법’ 등 논의 △ 민주 “행방이 묘연”...권성동, 통일교 소유 골프장서 포착 △ 한국기자협회 창립 61주년...이 대통령 “허위·조작 정보 막아 민주주의 지켜내야” △ “배신자” 외치는 국민의힘...전한길 쫓아내고 당원끼리 갈등 △ 대통령실, '주식양도세 기준 정부 안 불변...당장 조율 지켜볼 것' △ 광복절 특사 발표에 비판 잇따라...‘사회적 논란·여론 분열’ △ 정청래에 쏟아진 원로들 쓴 소리...‘악마와도 손 잡아야’ 협치 주문 △ ‘조국 사면’ 與 중도층 이탈 여부 긴장

■ 13일(수) : △ 김건희 구속...현정사 첫 前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 △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 '최대 200mm 극한 호우' 수도권 곳곳 침수, 통제 △ 서울 출근길 물폭탄...하천 29곳·증산고 하부도로 통제 △ 李대통령, 23~24일 방일...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 이 대통령,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지명 △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특혜' 관련 감사원 압수수색 △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 수도권·충남 물폭탄...“외출 자제해달라” 중대본, 비상근무 2단계로 격상 △ 산림청, 서울·인천·경기·강원 산사태위기관리 '심각' 상향 △ 송언석 “당사 압수수색은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 짓” △ 조국혁신당, 지도부 임기단축·전당대회 개최 결정 △ 李 대통령,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주재-정부 지출 효율화 방안 모색 △ 李 대통령, 문체부 1·2차관 등 차관급 10명 인사 △ 김건희 구속...野 당권 주자들 “이재명 정치 보복” vs “사필귀정” △ 이재명 정부, 독일처럼 북과 '남북기본합정' 체결 추진 △ 민주 “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3기 신도시 빠르게 진행” △ 오세훈·국힘 광역단체장, 李 임명식 보이콧...“사면 항의” △ 월 10만 원 아동수당 늘린다...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 李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박근혜·이명박 前대통령 불참키로

■ 14일(목) : △ 법무부, '尹 수용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교체 △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 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온하·송철호 무죄 확정 △ 국회 윤리위, 전한길 경고 조치 처분 △ 李 대통령 "2차 내수활성화 또 필요" 추가 돈풀기 예고 △ 국민의힘 전당대회,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 △ 이재명 정부 유화책에도...北 김여정, '허망한 개꿈' 선 긋기 △ 李 대통령, 독립 유공자 후손 영빈관 오찬 △ '특검 압색'에 국회 "절대 협조 불가" △ 국민의힘 “당원 정보 요구는 국민 검열”...민주당 언론특위 출범 △ 김문수,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규탄...당사서 무기한 농성 △ 특검, 김건희 구속 후 첫 조사...“진술 거부” △ 경기북부에 이틀째 집중호우...파주 누적 강수량 302.9mm △ 조국 출소뒤 내주 공개행보 나설듯...혁신당 '조국체제' 복귀 박차 △ 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2단계 방안도 거론

이번 주간 집계는 ①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8월 11일(월)부터 8월 14일(목)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총 38,319명 통화 시도)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다. ②정당 지지도 조사는 8월 13일(수)부터 8월 14일(목)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총 21,234명 통화 시도)이 응답을 완료, 4.7%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통계보정은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토크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리얼미터 트위터, 페이스북 : @realmeter

- ◆ 리얼미터의 정례 전국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응답 방식은 미국 갤럽, 라스무센 등 미국 여론조사 회사도 사용하고 있는 전화조사의 유용한 한 방식입니다. 번호를 직접 누르는 ARS의 비밀투표 방식은 응답자가 주변 사람을 의식해 자신의 솔직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솔한 응답을 내보일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고, 조사자의 주관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를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 ARS 조사 관련해서는 한국조사협회(KORA: 前 한국마케팅조사협회)가 지난 2014년 7월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실제 여전히 소속 회원사들이 ARS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소속 회원사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결의안 채택과는 상반되게 정치·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KORA 회원사의 20% 이상이 ARS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 반면 한국정치조사협회(<http://kopra.kr>) 회원사들은 선진국의 유명 여론조사기관처럼 ARS 조사방법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전화면접 조사방법과 함께 혼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ARS 조사도 나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사과정과 통계과정에서의 보완 과정을 거치게 되면 효율적인 조사방법이기 때문에, 선진국 유명 회사들이 조사를 채택하고 있고, KOPRA 회원사들 역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 향후 리얼미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조사 등 신기술을 활용한 조사도 과감히 도입하여, 기존 매체를 통한 조사방법의 한계를 극복한 선도 조사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